

###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0>



#### 붓다 가르침에도 집착 말라

지난 달 김선일 씨의 참수를 보고 국민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테러리스트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한국군의 파병을 막기 위해 무고한 한 젊은이를 희생시킨 테러리스트의 잔인한 행위에 분노하였다. 그런데 김 씨를 살해한 '일신과 성전' 단체의 아랍어 홈페이지엔 김 씨가 이라크에서 개신교를 전파하려고 해서 살해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국제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종교적인 측면이 더 우선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가 개신교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학을 전공한 자로서 이슬람 세계에서 개신교 선교 활동을 하려는 후보자였기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 이 종교 단체는 김 씨를 '카피르(이교도)'로 규정하고 신의 존재와 의미를 부정하는 자이므로 무슬림(이슬람교 신자)은 카피르를 죽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김 씨의 죽음은 종교간의 충돌에서 아낀 것이다.

영국의 BBC방송은 한국 개신교인의 증동 지역 선교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지난 5월 지적했다고 한다. 더구나 한달 전인 4월에 한국인 목사 등 9명이 납치되어 풀려난 일도 있다. 지금 증동엔 선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 있는

있을까? 나는 이제 이쪽 언덕에서 풀과 나무를 끌어 모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 하겠다.' 그는 곧 이쪽 언덕에서 풀과 나무를 끌어 모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안전하게 저쪽으로 건너갔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뗏목은 나에게 이익이 많았다. 나는 이 뗏목을 타고서야 안전하게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건너올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이것을 오른쪽 어깨에 메거나 혹은 머리에 이고 가리라.' 그래서 그는 곧 이 뗏목을 오른쪽 어깨에 메거나 혹은 머리에 이고 간다면, 과연 그 뗏목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뗏목을 위해 유익한 일이 되겠는가? 그 사람이 이 뗏목에 대해 감사하지만 이 뗏목을 도로 물에 두거나 혹은 언덕 위에 버리고 가는 것이 그 뗏목을 위해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들이 내가 설한 뗏목의 비유에 대해 잘 안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도 버려야 하겠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강을 건너고 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강변에 놓아두면 된다. 그런데 그 뗏목을 계속 어깨에 짊

### 유익한 법도 집착 과하면 다름 일어나 포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

한국의 개신교 단체 및 선교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중종의 이슬람교도는 개신교의 선교에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두 절대신은 서로 다른 존재로 각기 신봉된다. 개신교도는 여호와를 최고의 신으로, 이슬람교도는 알라를 최고신으로 찬양한다. 서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불교는 이런 종류의 신들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고 평화적이다.

불교의 이런 태도는 붓다의 가르침에 기인한다. 붓다는 당신의 가르침마저도 집착해선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리타경>에서 뗏목의 비유를 설명해 법조차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물이 매우 깊고 지극히 넓으며, 물살은 빠르고 긴데, 거기에는 배도 없고 또한 다리도 없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쪽 언덕에 불이 있어서 그 곳을 건너고자 하였다. 그는 건너려 하다가 곧 생각하였다. '이 물은 매우 깊고, 물살은 빨라 헤엄쳐 건너갈 수 없다. 건너갈 수 있는 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 그러니 나는 저쪽 언덕에 일이 있어 꼭 건너가야 한다. 어떤 방편을 써야 내가 저쪽 언덕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어지고 간단해 어려서는 일이다. 붓다의 가르침도 뗏목과 같이 고통의 강을 건너고 나면 더 이상 힘들게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 아무리 유익하고 고마운 법일지라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다름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불법을 알리는 것은 불법 자체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불법 포교라는 것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천도선언에서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다. 사찰이나 신도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 조직을 더 키우기 위한 포교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로지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전도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의 선교 열정에 대해서는 부럽다. 우리 불교인은 불법을 알리는데 너무 소극적이어서 절에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한 사지에 가서 무리하게 포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을 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고회를 훌쩍 넘긴 세수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서 서울로 의정부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도운 스님. 법명인 '도운(道允)' 처럼 길을 걷고 있는 '길 위의 수행자' 다.

## 남 흉내내지 않는 것도 道



### 지상 백고좌 도운 스님 (설악산 영시암 회주)

### "먹을것 스스로 해결하자" 40여년간 주경야산하며 '일과 수행은 하나' 실천

길 위에 있었다. 설악산에서 서울로 의정부로 늘 '포교길' 위에 있었다. 고회(高樞)를 훌쩍 넘긴 세수에도 불구하고 개암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도운 스님(인제대 영시암 회주)을 서울 충정사에서 만났다. "요즘도 바쁘게 지내십니까?" "의정부 쌍용사에는 한달에 두 번 가고 충정사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옵니다. 그래도 영시암에 있는 때가 제일 많지." 스님은 인제 백담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오세암과 봉정암을 복원했다. 백담사 주지 소임 후 의정부 쌍용사에서 의정부지회 포교활동에 주력하면서 '불교 새마을운동'과 '경제생활 개선 운동' 등을 펼쳤다. 1988년부터는 영시암을 복원해 회주로 있다. 예비역 장성동 이 불사를 한 충정사에는 무진장 스님, 석주 스님 뒤를 이어 주지직을 맡고 있다. "그렇게 살다보니 제 법명인 도운(道允) 중 '도(道)' 자처럼 길을 걷고 사는 사람이 돼 버렸죠. 허허." 말끝에 웃음을 터뜨린다. 그 웃음 속에 길에서 사는 사람 특유의 허허로운 도 느껴진다.

"그런데 걷는 게 느려졌어. 예전에 부지런히 걸으면 4km 정도는 13분에서 15분이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돼. 뜸하고 마음하고 같이 못가서 그런 것 같아." 교통이 발달해 이제는 4시간 정도면 서울에서 설악산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 중 불속 꺼낸 한마디. 단순히 육체의 쇠약해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덧붙인다. "먼저 가고 뒤에 가고 하는 것도 거기가 거깝니다. 쓸데없는 일들이지." 속도경쟁의 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속도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고 순위를 매기는 우리 사회. '빠름'이 곧 '선(善)'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쓸데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데 사람들 모두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그렇겠지요. 내가 나대로 사는 것,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얘긴가. 진정한 나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나대로' 살 수 있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 스님의 말을 곱씹어 본다. "남 흉내를 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도(道)'가 아닌가 싶어요. 요새 사람들은 모조품을 많이 만들고 또 그걸 좋아해. 틀 하나만 만들면 똑같은 모습이 나오거든. 보통 천편일률이라고 하지. 천편의 글이 모두 같은 줄이라고 하면 멋있고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는 듯한 스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쳐다보는 스님 눈길은 그대로 받을 수 없어서였다. 잠시 탁자를 내려다봤다. "내가 올해 74살이에요. 요새 나이로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를 먹으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부담 없이 살 수 있거든. 체면치레 안 해도 되고, 특별

##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봉도사, 법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간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통을 비롯한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뇌출혈, 뇌경색,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 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열거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모든 자석을 치료 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며** 또한 구입하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재(핵심,케번,케번)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홍현외)  
나자신의건강과가족의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장염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염이 되었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 육법등 (六法燈)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전도를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히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조실스님이다 주지스님이다 이런 감투를 쓰고 있으면 이름에 걸리기 쉬워. 하지만 소임도 소임으로 알고 본분을 익히면 그보다 자유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

연륜에서 나오는 것일까. 수행이력에서 나오는 것일까. 넉넉함이 말끝에 흐른다.

스님은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이른바 엘리트 학승이었다. 그러나 출가 이후 몸을 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스님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정선 향적사, 적조암, 설악산 오세암, 봉정암, 화성 신홍사 등. 지금은 번듯한 사람들이지만 60년대만 해도 토굴수준이거나 폐사지일 뿐이었다. 스님은 이런 곳에서 자급 자족을 하며 치열하게 정진했던 것이다.

“나를 부르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행복인 것 같아. 마음이 따라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지. 나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면 700km가 넘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고달파. 몸살도 나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스님은 내설악을 찾은 불자들에게 ‘설악산 농부 스님’으로 불린다. 영시암에서 무배추 등을 키우며 40여년간 주경야선(晝耕夜禪)을 해 오고 있다. 또 당귀, 작약, 더덕 등 약초도 재배한다.

스님에게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일깨워준 사람은 복천암 주지 불인 스님이었다. 어느날 불인 스님이 ‘돼지를 보았는가. 그들은 구정물을 먹고 살지만 많은 것을 세상에 회향한다’고 말했다. 열어먹은 만큼, 아니 그보다 몇 배로 갚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이때부터 도운 스님은 세상에 회향할 것이 무엇인지 늘 염두에 뒀다고 한다.

‘수행자라면 내 먹을 것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스님.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더 견강해 지다는 도운 스님. 스님은 문득 자랑 한 가지를 꺼내놓았다.

“내가 다른 것은 자랑할 게 없고 기술 한 가지 자랑하지. 어디든지 도끼하나 톱 하나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 옛날 스님들한테 전수받은 거야. 요새는 큰 집을 토굴이라고 하지. 원래는 바위 밑에 구덩자 놓은 걸 토굴이라고 해. 2평이런 충분하지. 손님 맞기도 할 수 있어.”

왜 갑자기 토굴 얘기를 꺼낸 것일까. 장부 일대사(一大事)를 궁구하기 위한 토굴이 개인 재산으로 치부되고 있고, 온갖 환단시설을 갖춘 호화 별장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요새는 그런 토굴에서 살려는 사람이 없어졌어. 대가 끊어진 것 같아. 토굴에서 살다보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

어오고, 가을이면 맑은 달을 쳐다볼 수 있어. 일종의 선율이랄까.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

스님 눈길이 천정 한 곳에 머무른다. 스님은 출가 후 강원도 정선 정암사에 위치한 적조암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옷 한 벌과 바리때 하나만 챙겨 간 적조암에서의 생활은 토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혼자서 나무רות 농사짓고 살다보니 자연스레 묵언정진에 들어가지도 했다.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이라도 하는 듯, 겸손한 생활을 하는 후학들이 줄어들음 안타까워하는 듯, 짐뭉이 흘렀다. 스님은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영시암에 가면 도량 안에 노송 세 그루가 있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그런데 이제 나무가 서로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고 하던가. 소나무의 무성함을 잣나무가 즐거워한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파라지. 친구가 잘되면 내 신세를 돌아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대신 나도 부지런히 크면 되잖아.”

스님은 영시암에 있을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법당 툇마루에 나와 좌선을 한다. 봉정암과 오세암에 가는 신도들을 위해서다. 사찰을 무심히 지나치기보다 노스님을 발견하고 합장이라도 한 번 하면 그만큼 업장소멸이 되기 때문이다. 스님 역시 재배한 약초로 차를 끓여 신도들에게 대접한다.

“설악산을 찾는 불자들이 봉정암만 짚어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루에 수백 수천명의 사람들이 영시암 마당을 밟고 가는 데도 영시암 부처님께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차 공양이었지. ‘차나 한잔 들고 가게나’가 불교의 인사법 아닌가.”

4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오사오도 들러 ‘노년에 산중에 편안하게 계시지 불사한다고 아직도 서울과 의정부를 다니시냐’고 격정스런 말들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은 그런 말 속에 도시불교와 산중불교를 나누는 생각이 한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때는 도시불교를 폄하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불교는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하는 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길은 원래 길이 아니었다. 먼저 지나간 이들에 의해 길이 됐을 뿐이다. 40여년 넘게 전방의 길을 걷고 있는 도운 스님. 스님은 여전히 ‘길 위의 수행자’였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대 기자



40여년간 주경야선(晝耕夜禪)하고 있는 도운 스님.

### 도기·툭 있으면 집 한채 푹딱 약초키워 신도들에게 차대접 “불교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도운(道允) 스님**은 1931년 경북 경신에서 출생했다. 58년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문맹퇴치와 농로개발 등을 하며 2년 정도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러던 중 학문의 갈증을 풀기 위해 공주 마곡사 복천암을 찾았다. 당숙인 고(故) 뇌허 김동화 박사가 당시 복천암에 있던 관음 스님을 소개해줬던 것이다. 도

운 스님은 60년 관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도운 스님이 봉정암에서 수행하던 시절, 관음 스님이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다. 무관련에 들어가 육년간 수행하려면 관음 스님에게 “스님, 무관련에 들어가니 말고 여기 계시면 어떨까요?”라고 여쭈었다는 스님.

그러나 관음 스님은 “도운인 여기 육년 있고, 나는 내려가 그곳에 있지”라고 대답한 뒤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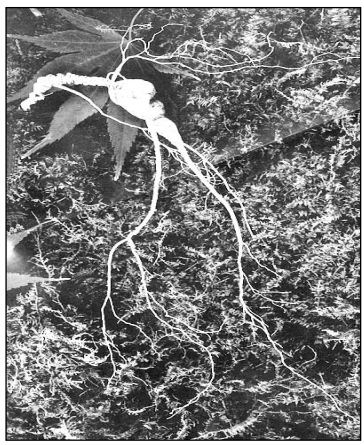
날 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여섯 해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도운 스님은 지금도 “그때 그대로 수행에 힘을 쏟았으면”하는 후회가 든다고 한다.

65년부터 72년까지 정암사 적조암, 오세암, 봉정암, 백담사 주지 등을 역임한 스님은 80년 중앙승가대 2대 학장 및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월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루미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장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여자는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증, 장자결핍, 성욕결핍,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체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精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善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익산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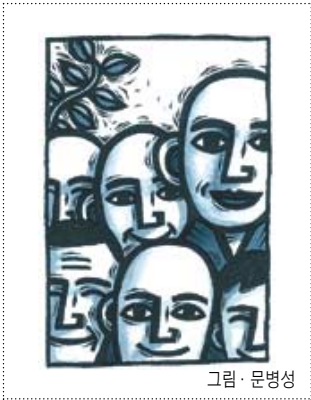
###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지현 스님

부산의 사하구에 있는 당리동 관음사는 법회 때마다 수백 명이 모이는 모범적인 포교도량이다. 이십 년 전만 해도 법당 한 채와 요사 채 한 동, 허름한 식당 한 채가 전부였다. 지금의 관음사는 도량의 모습이 환골탈태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싶을 만큼 면모가 일신되었다.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은 똑같은 공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스님이다. 말보다는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결과 스님이 사재를 털어서 인수한 관음사는 하루가 다르게 신도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함을 더해갔다.

지현 스님 절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난다. 우리가 들어도 잘하는 염불이 아닌데도 신도가 넘치는 것은 지현 스님의 행과 신심을 믿고 따르기



그림·문병성

때문이다. 스님은 남이 흉내내기 힘든 일상화된 원력과 부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뜻대로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해인사는 강원도의 정규 일화년인 처문반에 입방하기 전, 사미율의 반을 두어서 사미가 익혀야 할 계율을 배우게 한다. 이때까지 제방의 선원에 서 정진하던 지현 스님이 강원도의 강사의 길로 접어든 첫 번째 길목에서 사미율의 반인 우리 반을 맡게 되었다. 지현 스님은 스스로에게는 참으로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한없는 자비심으로 대했다.

정말 말로만 들었던 ‘자비보살’을 날마다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사미율의 반인 우리 반은 고된 행사생활을 해인사에서 함께 했던 인연 때문에 동료애가 끈끈했다. 그래서 엉뚱한 일로도 골달 뚫치고 했다. 지현 스님은, 우리가 그런 엉뚱한 일을 벌여도 아직 중들이 안 들고 힘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어린이들 응석 받아주듯 잔잔한 미소로 넉넉하게 받아 주셨다.

결계철에 신문을 벗어나서 원행(圓行)을 한다 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미율의 진도가 잘 진행되다 보니 교과과정의 결

계철에 마치게 되었다. 책 한 권을 마치게 되면 옛날의 서당처럼 강원에서는 ‘책걸이’라는 의식을 행한다. 무엇이든지 뚫치면 좋은 일인줄 알고 있는 철딱서니 없는 사미율의 반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던 것이 부속으로 책걸이소풍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강사스님을 섬ط하기로 했다. 결계철의 소풍은 산문인의 가야산 정상이나 산 중턱에 있는 마애불 참배가 관례였다.

그런데 지현 스님은 미리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문했다. 부속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갔다와서가 문제인데 그것을 철저히. 다른 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나고 되물었다. 강사안거 기간인 결계철에 대중은 산문 밖 출입을 삼간다. 하지만 사미율의 반 전체가 스님과 함께 비록 답일치기지만 부속으로 유쾌한 사미율의 책걸이를 다녀왔다. 물론 비밀은 철물같이 지켜졌고, 강사스님과 우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넘어서 혈맹 관계로 인식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고를 한

### 아랫사람 사랑으로 감싸는 살아있는 ‘자비보살’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인사에는 유독 어른이 많았는데 지현 스님은 이 많은 어른들을 한결같이 꾸짖하게 모셨다. 어른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생활화된 분이 바로 지현 스님이다.

지현 스님의 은사스님은 송광사 방장인 보성스님이다. 어른들이 다 그렇지만 보성 스님도 모시기가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닌데도 지현 스님은 어른스님을 당선 하시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모신다. 그렇다고 무조건 순종하며 모신 것도 아닌데,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지현 스님은 일가즉 다섯 분이 부처님 제자로 출가했다. 부친과 형제처럼 다섯인데, 부친은 이미 입적하였고, 형제들은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으로 신분을 바꿔서 제방의 선원과 기도처에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행복한 삶은 지혜롭게 살 때 가능하다. 지혜는 바르게 살 때 성취된다고 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청정함으로 가득하다. 지현 스님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보인다. 번잡스럽지 않으면서, 번잡스러운 일을 기꺼이 해내는 스님의 원동력은 매사에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수행력이 뒷받침되어서 가능하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니 관음사 포교뿐만 아니라 복자관, 장학재단 등 많은 일을 잘 해내고. 연꽃처럼 초연한 삶이 지속되지 않나 싶다. 그런 일관된 원력이 부러울 뿐 아니라, 스님처럼 향기가 나는 수행자가

고 싶다.

■ 해인사 원담암

2005 원일 불교카렌다 출시!!

-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 카렌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www.wonil-c.co.kr